

# ‘단기 전세버스’ 탑승객 명단 의무화

버스 내 노래·춤도 단속...통학·통근 등 전세버스 제외  
광주시, 광화문 집회 전세버스 탑승자 명부 작성 행정명령

앞으로는 행사나 관광, 집회 등을 위해 단기적으로 전세버스를 운행할 때 반드시 탑승객 명단을 작성해야 한다. 단기 전세버스의 경우 이용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단기 전세버스 탑승객 명단 작성을 의무화해 전자출입명부를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윤 반장은 또 “전세버스 내에서 노래와

춤과 같이 밀접한 접촉을 하거나 침방울(비말)이 발생하는 등 감염 확산 우려가 큰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단속을 강화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 참가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지만 이들이 탄 전세버스 탑승자 명단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방역 및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는 데 따른 조치다.

이번 조치에는 이용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관광, 행사 등 일회성 행사 목적의 단기 전세버스만 해당한다. 다만 통학, 통근, 학원버스 등 정기적으로 운행되는 전세버스는 제외된다. 광주시와 전남도에서도 8·15 집회에 7대의 전세버스가 이용된 것으로 보고 조사중이지만, 탑승자 신원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25일 전세버스 탑승자의 명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광화문 집회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는 상황에서 전세버스 이용객 중 의심 환자가 발생했을 때 효율적으

로 대처하기 위한 조치다. 이날 오후 5시부터 별도 해제 조치가 있을 때까지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탑승자는 명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사업자는 버스 운행 전 반드시 탑승자 인적사항을 확인해 명부를 보관하고 탑승자는 명부 작성에 협조해야 한다. 행정명령을 어기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돼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확진자 발생에 따른 모든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도 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전남도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 촉구

12건 발굴 정부에 개선 건의

전남도는 기상이변에 따라 매년 일상화 된 자연재해에 대비해 농가가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 사항 12건을 발굴해 정부에 건의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 집중호우 등 재해발생 시 농가가 유일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보험 손해를 악화로 이유로 농가 보상기준을 매년 하향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올해는 사과, 배, 단감, 뽕은감 등 과수 4종에 대한 적과 전(열매숙기 전) 발생 재해 보상기준을 기존 80%에서 50%로 하향했다. 또 보험금 가입 시 발생될 과도한 자기부담비용을 비롯 보험기간이 만료되면 무효화될 소멸성 보험 및 작물별 특성이 미반영된 보험 운영 등으로 실제 농업인에게 돌아가는 보상금은 줄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이 같은 결과 배배·사과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면 보험가입률이 20% 수준으로 저조해 재해 발생 시 보험 미가입 농가는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길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시·군, 농업인 등의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안 12건을 발굴해 정부에 건의하고 나섰다. 건의내용은 주로 ▲과수4종 적과전 발생재해 보상수준 상향(50→80%) ▲대상 품목 및 사업지역 확대 ▲지역요율 산정 기준 세분화(시군→읍면동) ▲손해율 낮은 품목 ‘무사고보험료환급보장’ 특약 도입 ▲병충해 보상 확대 ▲피해를 산정 시 ‘미보상감수량’ 삭제 ▲영세농업인 보험료 국비 지원 확대(50→70%) ▲상품 가치에 따른 기준수확량 산출 ▲자기부담비용 인하 ▲과수4종 한정특약 보상 재해 확대 ▲잔다래 보상기준 개선 등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5대 종교단체 대표 코로나 극복 힘 모은다. 광주지역 5대 종교 단체 대표들은 25일 광주시청에서 이용섭 광주시장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4월 29일 이후 두 번째다. 간담회에는 이 시장과 광주기독교 교단협의회 대표회장 이상복 목사, 광주 불교연합회 수석부회장 도계 스님, 천주교 광주대교구 김희중 교구장, 원불교 광주전남 교구 장덕훈 교구장, 광주향교 김중재 전교가 참석했다. <광주시청 제공>

# 전남도 올해 ‘농업인 대상’ 선발

축산·임업 등 6개 분야 6명

전남도는 도내 농업인과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올해 ‘농업인 대상’ 수상자를 선발한다. 선정대상은 전남에서 남다른 열정으로 농업에 직접 종사하거나 농업 관련 사업장이 있는 자 가운데 농업발전에 기여한 공이 뚜렷한 농업인,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선발부문은 고소득 쌀 생산과 원예·특용작물, 유통·가공, 축산, 임업, 농산물 수출 등 6개 분야로, 각 1명씩 총 6명을 선정하게 된다. 참여를 희망할 경우 시·군 및

도 단위 기관단체를 통해 오는 9월 16일까지 전남도 농업정책과로 신청하면 된다. 전남도는 분야별 추천자에 대한 자체심사를 비롯 전문가, 관계 공무원 합동 현지 실사를 거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공개심사의 후 대상자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시상식은 오는 11월 11일 전라남도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에서 개최된다. 한편, 전남도 농업인대상은 지난 1996년부터 매년 전남지역의 우수한 농업인과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시상해 지금까지 24회 144명을 수여한 바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시, 코로나 피해 예비부부·예식업체 구제 나선다

광주시 복지시설 방역용품 지원

이용섭 시장 지원 방안 지지  
수해 침담·평동산단도 지원

이용섭 광주시장은 25일 간부회의에서 “결혼식을 앞둔 예비부부들과 예식업체의 피해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 시장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으로 예비 부부들이 결혼식 연기 및 하객 감소 등에 따른 막대한 위약금 부담을 떠안아야 하고, 예식 업체도 경영상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같이 주문했다.

이 시장은 “사회적 재난으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업체와 부부 간 계약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도움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로 결혼식 참석 인원은 50인 미만으로 제한됐고 고위험 시설로 지정된 예식장 내 뷔페는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이 때문에 결혼식 연기·취소, 보증 인원 문제 등으로 예비 부부와 업체 간 다툼이 잇따르고 있다. 광주시는 시청 1층 민원실에 소비생활 센터를 설치, 예비 부부와 예식업체들의

피해 신고를 받고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위약금 없이 최대 6개월간 결혼식을 연기하거나 보증 인원을 감축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첨단·평동산단 업체들에 대한 지원에도 나선다. 폭우로 첨단 산단 142개사 200억원, 평동산단 41개사 70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피해 접수는 광주시 투자유치과로 하면 된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는 25일부터 집단감염 위험시설인 사회복지시설 283곳에 방역용품을 긴급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긴급 지원은 재난관리기금 1억2300만원을 투입하며, 2200여개의 방역용품이 긴급 지원된다. 지원 물품은 방호복 774개·체온계 348개·소독약 1140개 등이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4월 사회복지시설 32곳에 방역물품을 지원한 바 있다. 류미수 광주시 사회복지과장은 “집단 감염 위험이 높은 사회복지시설에 우선 방역용품을 지원해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다”며 “사회복지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방역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

# 전남도, ‘사회적기업 관련 사업’ 호응 높아

기업 고도화·시설장비지원 등  
하반기 공모 300여기업 참여

전남도가 추진 중인 사회적기업 관련 사업에 대한 지역기업들의 호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25일 “사회적기업 일자리 증가와 경쟁력 향상을 위해 추진한 올해 하반기 ‘전남형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과 ‘사회적경제기업 고도화 및 시설장비지원사업’ 공모에 도내 300여개 기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이들 기업들을 위해 일자리창출과 사업개발, 지역특화, 시설장비 등 각 사업별로 전문가 심사를 통해 모두 71억여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개발비는 제품개발과 연구개발, 제품홍보 등 사회적기업에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지난해에 비해 1.5배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보였다. 시설장비지원 사업 신청기업도 지난해보다 증가해 사회적경제기업 운영에 안정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된다. 올 하반기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지정 신청에도 전남지역 55개 기업이 응모해 ‘민선 7기 전라남도 사회적경제기업 2000개 육성’에 후자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올해 총 30개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상반기에 17개 예비사회적기업을 이미 지정한 바 있다. 공모 결과와 서류검토와 현장실사, 심사 등을 거쳐 오는 9월 중 전남도 누리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

내 삶이 하나 듯...  
수목장은 보성 늘푸른입니다.

고객상담센터 062-412-2800

## 자연이 준 삶 자연으로 돌려주세요

세상이 변하듯 ... 장묘문화는 수목장이 대세입니다.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 보성군 소재

(순천, 화순, 나주, 여수, 광양, 고흥군, 장흥군)

### 수목장 \* 자연장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 저렴한 비용으로 10기 이상 선산도 가능합니다.